News Release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06141,
KOREA
Phone: 82-2-3210-2480~3
Fax: 82-2-3210-2488
https://www.bridgestone-

브리지스톤 타이어 후원, 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시즌 3 차전 결과

- **브리지스톤 타이어, 오네 슈퍼레이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3 년 연속 타이어 공급 및 장착 서비스 지원**
- **송형진(어퍼스피드), 프리우스 PHEV 클래스 3 차전 우승**
- **서상언(다이나믹 레이싱) 2위, 강창원(부산과학기술대) 3위**
- **오피셜 타이어 브리지스톤 포텐자 RE-71RS, 우중 레이스에서 뛰어난 접지 성능과 핸들링 성능으로 선수들의 안정적 기량 발휘에 기여**

서울 (2026 년 7 월 20 일) —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의 국내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대표이사 김헌영, 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후원하는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 라운드 프리우스 PHEV 클래스 3 차전이 7 월 18 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로 열렸다.

송형진 선수, '폴 투 윈' 우승

나이트레이스로 진행된 이번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 라운드는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트랙 일부가 침수돼 오전에 있을 일부 경기가 취소됐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메인 행사인 나이트 레이스를 비롯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폭우로 인해 노면이 젖으면서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치기 힘든 조건을 맞았다. 젖은 노면에서 수막현상과 시야 확보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드라이버들은 치열한 랩타임 경쟁을 벌였다.

예선 선두였던 송형진 선수가 결승 스타트 신호와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레이스 내내 선두를 지켰다. 송 선수의 뒤를 예선 2 위 서상언 선수가 추격하며 송 선수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했고, 그 뒤를 김영민, 강창원, 이율 선수가 따르면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였다.

젖은 노면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레이스 선두를 이끈 송형진 선수가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으며 우승을 차지했고, 서상언 선수와 강창원 선수가 각각 2 위, 3 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송 선수와 함께 포디움에 올랐다. 18 일 진행된 예선과 결승 레이스에는 각각 총 6 팀, 16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 총 6 차전 중 3 차전까지 치른 현재, 송형진 선수가 누적 1 위를 달리고 있으며 강창원 선수와 이율 선수가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의 오피셜 타이어인 브리지스톤 포텐자 RE-71RS(POTENZA RE-71RS)는 이번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폭우로 인해 트랙이 젖은 상태에서 뛰어난 접지 성능과 핸들링 성능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는데 기여했다.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2024 년부터 3 년 연속으로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타이어 공급과 장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팀과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매 경기마다 타이어 교체와 타이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 4 차전(2026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 라운드)은 오는 8 월 22 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나이트레이스 코스로 열릴 예정이다.

###